

## 1960년대 근대화와 ‘보통’ 여성의 문학 행위

—박완서의 『나목』 창작 및 등단 과정을 중심으로

한 경 희\*

### 요약

1960년대는 한국 여성들의 문학 행위에 있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다.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의해 경제력 향상, 기옥 구조 변화, 가전제품 도입, 가족 규모 축소 등이 일어남에 따라 그간 문학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도 문학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점차 가지게 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일간지, 시사지, 여성지, 라디오, TV 등의 대중매체들은 이 여성들을 상대로 담론장을 개방하였으며, 그 결과 상류층 엘리트 여성들만 가능했던 문학 행위가 대중화되었다. 도시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여성 독자들은 이제까지 아무도 관심 가져 재현해준 적 없었던 자신들의 일상적인 생활상에 대한 서사물들을 읽고 썼으며, ‘불안’과 ‘고독’과 같은 관념적 정서에서 사실적인 ‘생활’로 여성문학의 감성 구조를 변화해나갔다. ‘교양’ 함양을 모토로 1955년 창간된 《여원》이 1970년에 폐간되고, 1967년에 ‘실용’을 모토로 《여성동아》가 창간된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 《여성동아》는 ‘여류장편소설공모’를 통해 새로운 독자층으로 부상한 서울 중산층 여성들을 여성문학 생산자로서 ‘정식’ 자리매김하였다. 서울 중산층 가정의 20년 차 전업주부이자, 미성년 자녀가 5명 있었던 40세의 박완서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제3회 《여성동아》 여류장편소설공모 당선작이자 박완서의 첫 소설 『나목』(1970)은 전후 여류 문예적 경향을 탈피하고 ‘생활’ 감수성을 바탕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던 1960년대 중후반 여성서사문화 속에서 쓰인 소설로, 박완서라는 작가가 세대·계층·젠더·지역적 특성이 교차하는 담론 집단 속에서 구성되었다는

\* 서울대 박사수료

사실을 잘 나타낸다. 『나목』의 모티프가 되었던 박수근이라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는, 당대의 사회적 변혁을 평범한 전업주부인 자신(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경험/해석하고 있는지 ‘생활수기’의 형식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했던 도시 중산층 여성 전체 분위기 속에서 박완서에게 구체적 묘사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것이었다. 자기 경험 묘사를 통한 사회적 소통의 작업을 유별히 생생하고 강렬하게 잘 할 수 있었기에 박완서는 전문적 문학 행위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박완서가 평범한 전업주부이기를 그쳤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박완서의 초기 작품 『나목』(1970)과 『한발기』(1973)가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작가 개인의 반응뿐만 아니라 당대 여성 일반의 공동의 의미를 띠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박완서, 주부, 생활수기, 나목, 1960, 박수근, 여성동아, 근대화

목차

1. 서론
2. 1960년대 근대화와 문학 행위자로 부상하는 서울 중산층 여성
3. <<여성동아>>의 ‘여류소설장편공모’와 전업주부의 작가되기
4. 여성대중담론으로서 ‘생활수기’ 부흥과 ‘박수근’ 묘사하기
5. 결론

## 1. 서론

문학은 영화, 드라마, 미술, 음악과 같은 여타 예술과 달리 비교적 적은 사회적 자원 - 리터러시, 시간, 종이, 펜 - 만 갖추어도 쉽게 수행 가능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에 의해 일상적으로 생산되고 향유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리 이글턴이 문학의 자율성과 물질적 생산양식의 발달이 맞물려있음을 강조하며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문학의 생산 및 소비 행위를 위해서는 육체적·정신적 안녕과 여가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 주거지, 조명,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물질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sup>1)</sup> 다른 예술보다 그 정도가 덜 하지만 문학 역시 물질적 조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접근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같은 시대 상황에서도 젠더 별로 문학 행위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이로부터 연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젠더 차별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친족관리 등 가정생활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되고, 금전, 시간, 공간 같은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성의 사적 자원이 법적·관습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들의 문학 행위는 남성들의 문학 행위보다 물질적 환경에 더 많은 구속을 받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1960년대는 한국 여성들의 문학 행위에 있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다. 이 시기 기업화되기 시작한 언론사들은 일간지, 시사지, 여성지, 라디오, TV 등의 대중매체들이 보다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성 일반을 상대로 담론 장을 개방하였다. 그 결과 상류층 엘리트 여성들만 가능했던 담론 행위가 대중화되었으며, 특히 경제개발과 근대화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루었던 대도시 중산층 여성들이 문학 행위의 새로운 주체로서 견인될 수 있었다. 1930-40년대 생인 이 여성들은 1950년 한국전쟁과 1960년 이후 압축적 근대화라는 사회적 변혁을 겪은 세대들로, 공통의 역사적 경험 및 감정을 바탕으로 1970년을 전후하여 전후(戰後) 여성문예와 구별되는 새로운 주제와 스타일의 문학을 생산해냈다. 이 세대 여성들은 소설과 TV 드라마 때로는 영화를 오가며 1990년대 초반까지 여성서사문화의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동시대 여성들은 물론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감수성을 형성하는데 뚜렷한 영향력을 미쳤다.

본고는 1931년 생 40세 서울 중산층 가정 20년차 전업주부 박완서가 1970년에 '느닷없이' 소설 쓰기에 뛰어들었던 일련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는 것으로써, 산업화 시대 여성서사문화의 형성 및 전개 과정에 다가가보

1) 테리 이글턴, 윤희기 옮김, 『비평과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2012, 93면.

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박완서의 소설 창작 기원은 작가의 트라우마틱한 개인사적 체험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왔다. 신수정의 비평 『증언과 기록에서 소명』(1998)에서 박완서 소설 쓰기의 기원이 작가가 실제 체험했던 역사 및 시대를 증언하는 데 있다고 처음 분석된 이후, 박완서의 소설 쓰기 원동력은 지나온 시대에 대한 ‘복수’와 ‘증언’의 의지에 있다고 얘기되어왔다.<sup>2)</sup>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작가의 트라우마틱한 ‘원초적’ 체험을 유년기 근대 사회로의 입사로 볼 것인지, 20살 한국전쟁 체험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어왔다. 전자의 방향에서는 『엄마의 말뚝』(1980)을 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근대 체험의 억압적이면서도 해방적인 이중성에 대해 분석했으며<sup>3)</sup>, 근대 체험이 모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 착목해 여성의 성장과 모성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기도 했다.<sup>4)</sup> 후자의 방향에서는 『나목』(1970) 및 『한발기』(1973)와 같은 박완서 초기 소설을 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국전쟁을 서민 여성의 시각에서 증언하는 일이 사회주의 사상, 전장의 후방, 미시적 일상사 등 이제까지 남성중심적 공적 역사 및 거대 이념에 의해 비가시화되어왔던 영역을 비로소 재현하게끔 해주었다고 지적했다<sup>5)</sup> 이러한 논의

2)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 - 박완서론』, 《오늘의 문예비평》, 1998.3.

3) 이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들로 다음을 들 수 있다. 황도경, 『정체성 확인의 글쓰기』, 《이화여대 문논집》 13, 1994; 신수정, 위의 글; 이정희, 『오정희 · 박완서 소설의 근대성과 젠더(Gender) 의식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 - 박완서 문학과 서울』, 《여성문학연구》 25, 2011.

4) 이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로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 - 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6(4), 1994.11; 김은하, 『애증 속의 공생, 우울증적 모녀관계』, 《여성과사회》 15, 2004.

5) 이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로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 · 생장의 서사 - 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 2002;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국어국문학》 133, 2003; 박성천, 『박완서 자전소설의 텍스트 형성 기제와 서사 전략 - 『목마른 계절』과 『나목』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7, 2006;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 『엄마의 말뚝』, 『목마른 계절』,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실제 과거에 겪은 일들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여 서술한다는 박완서의 소설 창작 방법 때문이었다. 작가 본인에 의해 '울귀먹는다'로 표현될 만큼 같은 경험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소설로 쓰는 방식 역시 자전적 경험에 대한 증언 욕구를 박완서 소설 쓰기의 근본 동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었다.<sup>6)</sup>

하지만 많은 양의 연구가 축적되었음도 불구하고, 1931년 생 작가가 20-30대를 다 지나 하필 197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설 쓰기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된 바가 없다. 박완서가 전후 '여류문학'과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1970년대 '여성문학'의 시대를 연 작가 중 한 명으로 여성문학사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사실은 여성문학사의 결절점으로서도 반드시 충분히 고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7)</sup>

거기 있었을까』의 오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4, 2007.

- 6) 박완서의 반복적 글쓰기에 관한 논의로 다음 논의들을 참고해볼 수 있다. 이선옥, 『모성 다시 쓰기의 의미 : 박완서론』, 《여성문학연구》 4, 2000; 손윤권, 『반복의 글쓰기에 의한 박완서 소설 「그 남자네 집」의 서사구조 변화』, 《인문과학연구》 33, 2012; 김정은, 『박완서 전쟁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45, 2018.
- 7) 산업화 시대의 여성문예가 전후의 여성문예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편적 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정애는 1950-60년대 여성문학이 가부장제적, 반공주의적, 국가주의적 문단의 요구에 순응하고 '여류'라는 이름의 아비투스를 공유하면서 그들 나름의 기득권을 구축해나갔다면, 박완서와 오정희로 대표되는 1970년대 여성문학은 자신이 속한 계급이나 '여류'의 아비투스에 대한 냉정한 성찰을 통해 페미니즘 문학이 꽃 피울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박정애, 『女流의 기원과 정체성』, 한국학술정보, 2006, 15면, 205면.) 김양선은 1970년대 여성문학이 크게 박완서적 경향과 오정희적 경향으로 나뉘며 여성 작가의 회귀성 때문이 아니라 작가성과 작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박완서가 《여성동아》에서 『나무』으로 등단한 1970년을 시기 구분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문학제도와 양식』, 소명, 2012, 21면, 279면.) 김은석은 1970년대에 발간된 여류문학전집에 실린 여성 작가들의 작품 분석을 통해 1970년대 여성문학이 세속적인 생활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전 시대 여성문학과 주제를 달리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김은석, 『여류문학전집(1967-1979)과 여성문학의 젠더 정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2-92면.)

본고는 박완서의 ‘본질적’ 작가 의식에서 소설 창작 기원을 찾는 작업을 통해서 이 지점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아 거리를 두고, 대신 그간 문학 행위자가 아니었던 한 평범한 여성이 소설 쓰기를 시도할 수 있게끔 해주었던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박완서를 비롯한 수많은 문학 행위 주체들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함으로써, ‘작가’란 개인의 창조적인 의지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세대·계층·젠더·지역적 특성이 교차하는 담론 집단 속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아울러 이 작업은 박완서로 하여금 ‘소설’을 쓰도록 이끌었던 박완서의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뿐만 아니라 문학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제반 사회적 활동들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문학 행위’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sup>8)</sup>

## 2. 1960년대 근대화 와 문학 행위자로 부상하는 서울 중산층 여성

1931년생인 박완서는 1953년에 결혼하여 서울 동대문구의 평범한 전업 주부로 20년 가까이 살림을 꾸려오다, 1970년 11월 《여성동아》를 통해 40세의 나이로 등단하여 그 이후의 삶을 작가로 살았다. 당대 문학장에서 ‘주부’라는 박완서의 등단 전 이력은, 당시 대부분의 전업 작가들이 대학교육을 바탕으로 20대 초중반부터 등단 준비를 해왔다는 점과 비교해보

8) 김경연 역시 비평 시스템에 의해 공인된 여성 작가의 문학 이외 대중저널을 통해 수행되었던 여성들의 글쓰기와 글읽기를 살펴보고자 ‘문학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1920-3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과 여성잡지의 젠더정치』, 소명, 2017.) 이경하도 여성들의 문학 전통이 사회 주변부에서 형성되어 온 것임을 고려하여 ‘어문생활’이라는 용어 사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4.)

았을 때 이색적으로 더 자주는 무시 받을만한 이력으로 여겨졌다 이에 박완서는 등단 직후부터 자신의 늦은 등단에 대해 줄곧 질문을 받아왔으며, 그런 경우마다 아래와 같이 대답하곤 했다.

“제가 마흔에 글 쓰기를 시작한 걸 가지고 왜 하필 그때였나, 그동안은 어떻게 참았냐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제겐 막내까지 유치원에 들어간 바로 그 당시가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습니다.”<sup>9)</sup>

박완서는 위의 인터뷰에서처럼 자신의 삶에서 40세라는 나이가 늦은 나이였다기보다 비로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다고 대답했다. 미성년의 자녀가 5명이 있었던 박완서에게 1970년 40세가 된 해는 1963년에 출생한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였으며, TV에 이어 냉장고를 구입한 해이기도 했다. 이는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1931년 생 여성에게 40세라는 나이가 결혼 이후 줄곧 쉴 틈 없이 계속되어 왔던 가사 및 육아 부담이 비로소 줄어들기 시작한 해임을 뜻한다. 아래 인용은 2008년 아르코가 주관하여 채록한 박완서의 구술로, 글을 쓰기 이전인 1950-60년대에 박완서가 전업주부로 어떠한 일상을 보냈는지 잘 보여준다.

박 : 보통 동네고 그런데 그건 아 애가 줄줄이 달렸는데 애 하나 젓 떨 어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왜 글을 어떻게 진작 쓰지 그랬냐고 그러는데,

장 : 네.

박 : 애가 다섯이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밤낮 그래 애 손톱, 어렸을 때 그래요, 애들이 누구 하나 손톱 깎으려면 다 와서 발톱까지 하면 스무 개예요. 다섯이면 백 깎니다. (웃음) 내가 보문동 살 땐

9) 이나리, 〈불을 꺼안은 얼음, 소설가 박완서〉, 《신동아》, 2003.7, 279면.

조금 지대가 높은데 집에 그때도 식모가 있었지만 매일같이 장을 보잖아요. 옛날에야 냉장고 있어도 그래요. 다 이렇게 냉장고도 그 한, 60년대에 냉장고를 들여놨을 것 같아요. 암튼 양쪽에도 어떤 때 너무 밤낮 사들이니까 창피할 지경이야. 그 있잖아요. 아홉 식구예요. 제일 많을 때 아홉 식구에 먹을 것, 또 군것질 이런 거 사봐요. 저녁에도 제 아빠가 들어올 때 과자 같은 거를 늘 사 갖고 들어와요. 이래도 사들여도 사들여도 매일 장엘 가야 돼요.

장 : 네.

박 : 그때야 뭐 배달이라는 게 있나. 또 연탄 같고 그런 집에서 도대체가,

장 : 주부로서의 역할만으로도

박 : 그렇지요.

장 : 하루가 그냥 빠듯하게 돌아가는군요.

박 : 네.<sup>10)</sup>

생계부양자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라는 근대가족의 역할분담 모델은 개화기 이래 서구로부터 수입되어 줄곧 있어왔던 것이었으나, 이 모델이 현실화된 것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였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남성의 부재가 일상화되어있던 1950-60년대 현실에서 실질적인 가족 생계부양의 책임을 맡아왔던 이들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들이었다.<sup>11)</sup> 이에 경제개발 이전인 1950-60년대 한국 사회에서 한 가정의 부인이 오로지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해도 되는 전업주부라는 것은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60년대 중산층 가정주부들의 일상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서울 전업주부의 경우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채록 연구자 장미영), 『제3차 구술채록문 - 미군 PX 초상화부 근무와 문단 데뷔 전까지』,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108, 박완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2-123면.

11) 김연주·이재경, 『근대 '가정주부' 되기 과정과 도시 중산층 가족의 형성: 구술생애사 사례 분석』, 《가족과 문화》 25(2), 34-35면.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잠자리에 들기까지 가사노동을 종일 수행해야 했다.<sup>12)</sup> 냉장고와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이 없어 매일 장에 가고 손으로 빨래를 해야 했으며, 보일러 미설비로 연탄 관리를 직접 해야 하기도 했다. 재래식 한옥이라는 가옥의 구조도 주로 부엌에서 가사일을 하는 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을 길게 했다.<sup>13)</sup> 평균 5명의 자녀수, 3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 구조 역시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길게 하는 또 다른 이유였다.<sup>14)</sup> 이러한 '전근대적' 이유들로 말미암아 이 시기의 가사노동은 그 강도가 높아, 전업주부 한 명이 식모의 도움 없이 한 가족의 살림을 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1950-60년대 중소상공인 남편의 아내이자 다섯 자녀의 어머니 그리고 노쇠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아홉 식구의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가는 전형적인 서울 중산층 전업주부였던 박완서가 이러한 처지의 여성 중 한 명이었다.

따라서 가사와 육아만을 담당하는 중산층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독서를 비롯하여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도 가정주부들의 독서 부족 현상은 여성의 태만함과 무지몽매함 즉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표지로만 여겨져 지식인들에 의해 자주 질타되고는 했다.<sup>15)</sup> 그러나 1960년대 20-30대 여성들은 1930-40년대에 출생하여 해방 이후 의무적인 문자 교육을 받은 세대로, 특히 서울 중산층 주부의 경우 5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

12) 〈어머니는 고달프다〉, 《경향신문》, 1967년 5월 8일.

13) 〈서울의 주부생활〉, 《경향신문》, 1968년 6월 24일.

14) 1960년대 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3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2018, 30면 참조.)

15) 다음 신문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여성들의 독서량 부족은 여성들이 가정생활에만 신경 쓸 뿐 지적 교양을 쌓으려는 노력에 게으른 태만함과 무지몽매함 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일반여성, 살림에 억눌린채 『읽지않는다』가 대부분〉(《조선일보》, 1960년 10월 23일), 〈여성들은 반성하자 『영국여성이 본 한국여성』을 읽고〉(《동아일보》, 1960년 10월 5일), 〈書店街에 비친 主婦의 讀書熱 寒心... 겨우 顧客의 二割 찾는책은 小說·『스타일·북』 따위〉(《조선일보》, 1962년 10월 24일.)

고 있었던 고학력자들이었다.<sup>16)</sup> 이들은 지적 교양을 쌓는 일에 게을리 한 다기보다는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독서 활동을 비롯한 담론 행위 전반이 제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6년 제1차 경제개발이 완료되고 1967년 제2차 경제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 중후반 즉 한국 경제가 근대화 국면에 온전히 접어들어 시점부터 이 여성들의 일상생활이 차차 변화해나가기 시작했다.<sup>17)</sup> 기존 가옥 형태가 재래식에서 서구식으로 변화하면서 주부들의 주 활동공간인 부엌이 입식으로 개량되었으며<sup>18)</sup> TV 및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들이 서울 중산층 가정에 점차 보급되기 시작했다.<sup>19)</sup> 또한 가족계획 사업이 성과를 보이면서 가족 규모가 작아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가계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대도시 중산층의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가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던 중산층 전업주부들에게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의 '잉여'가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뜻했다. 1960년대가 '여성지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여성지 창간 및 발행부수가 증가하고<sup>20)</sup>, 여성 독자 대상의 문학 작품들이 활발하게 출판되었으며<sup>21)</sup>, 주부

16) 서울 종로구 내 재래식 한옥에 사는 중산층 가구 50가구 조사에서 주부들의 학력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22.3%, 고졸이 50.6%, 대졸이 16.2%, 기타 10.9%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주부 생활》, 《경향신문》, 1968년 6월 24일.) 1966년 기준 전체 한국 여성 중·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의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서울 사대문 안 중산층 전업 주부들의 평균 학력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여성 삶의 변화」,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1면 참조.)

17)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가 명확히 근대화 국면에 들어섰음을 입증하는 논의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허수열, 「한국 경제의 근대화 시점」, 《경영경제연구》 33(2), 2010.)

18) 〈편리한 부엌살림〉, 《동아일보》, 1969년 5월 29일.

19) 〈냉장고는 昨年の 15倍〉, 《매일경제》, 1968년 6월 10일.

20) 김종희, 「1960년대 출판문화와 여성지 연구 : 부르디외(Bourdieu)의 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1면. 김종희의 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14종의 여성지가 있었으며, 이중 3종만이 1950년대에 창간되고 나머지 11종은 모두 1960년대에 새롭게 창간된 잡지였다고 한다. 이 잡지들 가운데 발행부수가 10만부 이상이었던 여성지는 《여원》, 《여상》, 《주부생활》, 《여성동아》 총 4종이었다. (김종희, 위의 글, 55면.)

21) 1960년대 중후반부터 '여류'라는 이름으로 소설 및 수필들을 엮은 출판물들이 대량으로 발간

대상의 각종 문예 공모와 문예 강좌가 신설되기 시작한 것들<sup>22)</sup> 곳곳에서 포착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960년대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시간과 돈의 '잉여'를 가져보았던 이 여성들이 여성 계몽 담론의 대상이라는 서발턴의 지위에서 드디어 벗어나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문학 행위의 주체들로서 새롭게 출현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다.

박완서 역시 1960년대 근대화 및 경제개발에 의해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서울 중산층 여성들 중 한 명이었다. 박완서의 부군은 을지로에서 조명 제조업 및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서울 태생의 중소기업인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월수입이 안정되어 있었다.<sup>23)</sup> 박완서의 가정이었다. 1960년대 중후반 을지로 및 청계천 일대는 이 시기의

---

되기 시작했다. 1964년 『현역작가여류문학33인집』이 출간된 것을 시작으로, 1965년 2월 문학사상 처음으로 여성작가들만의 작품을 모은 『한국여류문학전집』이 문학사에서 출간되었다. 1965년 9월에는 한국여류문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출판 작업이 더욱 왕성해진다. 이 모임의 발족 이후 남성 지식인 및 남성 문학인들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966년 『여류신작수필63인선』, 『한국여류수필60인집』, 『한국여류문학인수필집 1,2권』이 출간되었으며, 1967년에는 한국여류문학인회가 편찬한 『한국여류문학전집』이 만들어진다.(김양선, 앞의 책, 196-206면 참조)

- 22) 경향신문사에서 1967년 1월 신춘문에부터 주부수기를 공모받기 시작하고, 한국여류문학인회에서 1967년 10월 제1회 주부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1968년 1월부터 조선일보사가 주부 독자 대상으로 '생활문예상'을 제정하여 매월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1960년대 중후반 이후로 주부 대상의 문예 강좌가 각종 단체들에 의해 열리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로 <배우는 주부들 활발해진 성인재교육>, 《동아일보》, 1967년 3월 23일, <양지회여성강좌>, 《경향신문》, 1968년 1월 13일, <『알뜰한女性像』에의 熱意>, 《동아일보》, 1969년 5월 1일.
- 23) 1953년 결혼 당시 박완서의 부군 호영진의 직업은 미8군 PX가 주둔하고 있던 을지로 동화백 화점 소속 측량 기사였다. 호영진은 1955년 미군 PX가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백화점이 들어서자 그 안에서 전기상을 운영했다. 1963년에는 삼성이 동화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신세계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점포를 모두 직영화하면서 가게를 내주어야 했으나 조명기구 제조업 및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했다. 호영진은 집 근처 신설동 일본식 2층집에서 조명기구를 만드는 가내공장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세운상가 및 청계천 등지에서 1980년대 초까지 근 20년 간 조명 제조업 및 도소매에 종사했다. (이나리, 앞의 글, 280면 참조.)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세워진 서울의 중심적 상공업 공간으로, 공구제조업, 의류제조업, 전기제조업, 식품도소매상가 등으로 번성했던 도심지였다. 남편을 매개로 도시 근대화 및 경제발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전업주부 박완서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그간 눌러두어야 했던 리터러시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썼다. 박완서는 제1차 경제개발이 막 시작되어 도시 근대화 물결이 대도시 중산층 가정에도 차차 영향을 미쳤던 1960년대 초중반부터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를 품었으며,<sup>24)</sup> 제1차 경제개발이 완료되어 그 물적 성과를 충분히 분배받았던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비로소 글을 쓰기 시작했다. 1970년 10월 8일 《동아일보》에서 진행된 『나무』 당선 인터뷰에서 박완서가 “막내가 자란 이제, 한밤의 여유를 틈 타 이상의 소설을 다시 꺼내 읽고 마침내 창작의 어려움에 머리를 적시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 때문이었다. 또한 이것이 박완서가 왜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심심해서 썼다’고 답을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어디서 무얼하고 있다가 언제 글을 썼니?』

이름도 희미하게 잇을 뻔 한, 여고동창들로부터 가끔 그런 전화를 받는다.

『막내까지 학교를 보내고 나니 좀 심심해서...』

나는 대수롭지 않은 듯 얼버무린다. 그리곤 자꾸 부끄럽다.

24) 다음 『나무』 당선 인터뷰에서 박완서는 『나무』 구상이 7·8년 걸렸다고 밝히고 있다. “얼마큼 알고있는 화가를 모델로 했습니다. 늘 「답답함」을 느껴오던 그분의 부고를 듣고 소설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가 《여성東亞》의 공고를 보고 구체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 너댓장, 마감에 임박해서는 三,四十장씩 석달만에 一千二百장의 장편을 이루었지만 구상에만 七,八年. “그러나 소설속의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라고 밝힌다. (“《여성東亞》 공모小說 당선 『裸木』 朴婉緒 여사 “戰火 속에 핀 畫家의 사랑그려”, 《동아일보》, 1970년 10월 8일.

四〇에 첫 소설을 썼대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이 값을 해서라도 좀 더 깊이 있고 무거운 글을 쓰지 못한 게 부끄럽다.

「진작 쓸 것이지」하고 아쉬워 하는 친구도 있지만 글을 안 쓰고 산 지난날이 후회로울 것도 없다.

나는 누구 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했다.<sup>25)</sup>

여자가 살림살이 외에 일을 갖는 걸 권장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 자신도 살림 외에 일을 가진 지가 오래되지 못하고, 시작한 나이도 남보다 뒤늦게였다. 지금이니까 얘기해준다며, 데뷔 당시의 나를 보고 저 여자가 저 나이에 문단이 어딘 줄 알고 뛰어들었을까 싶어 심히 딱하고 한심했노라고 얘기해주는 분도 있다.

그래 그런지 뒤늦게 일을 갖게 된 때 남다른 사유라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을 나는 꽤 만나게 되었다. 나는 이런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언젠가 심심해서 썼다고 말한 게 공표되어 애독자라는 분한테 엄한 꾸지람을 들은 일까지 있다. 그분은 문학이란 것을 낳기 위한 작가적 자세에 대해 양심이니, 고통이니, 투쟁이니, 사명이니 하는 말을 써가며 일가견을 피력했고 나를 나무랐다. 비록 전화의 목소리를 통해서였지만 나는 그분 앞에 몸둘 바를 몰랐고 아무런 변명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심심해서 썼다는 걸 지금 와서 반복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심심해서 썼다는 게 심심풀이로 썼다는 것하고는 다르게 이해되기를 바랄 뿐이다.<sup>26)</sup>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박완서는 자신이 전업주부로서 일상생활

25) 박완서 외, 〈특집 하면 되더라, 一九七〇年〉, 《여성동아》 1970.12, 173면.

26) 박완서, 「女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샘터》 9(9), 1978.9, 25-26면.

을 영위하던 중 차차 비어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심심해서’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당시 여성의 문학 행위 조건이 남성의 그것과 같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 없다면, 박완서에게 직접 전화하여 “작가적 자세”에 대해 “엄한 꾸지람”을 한 애독자처럼 ‘심심해서’라는 박완서의 표현은 ‘양심’, ‘고통’, ‘투쟁’, ‘사명’을 도외시하는, 문학에 치열하거나 진지하지 못한 ‘여성적’ 태도 혹은 ‘아마추어적’ 태도로 비하되어 읽히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는 문학 행위 주체의 보편적 기준을 진보 엘리트 남성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비판 더 정확하게는 비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작가를 옹호하기 위해 실제 박완서가 ‘양심’, ‘고통’, ‘투쟁’, ‘사명’으로 표현되기에 적합한 얼마나 치열한 작가의식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심심해서’라는 박완서의 말을 지워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보편적 문학 행위 주체로 상정된 진보 엘리트 남성에 서울 중산층 전업주부 박완서가 얼마나 ‘미달하는지’ 혹은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야기하는 것 모두 박완서의 전업주부로서의 서발터니티를 소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7)</sup> ‘아줌마’, ‘주부’와 같은 박완서의

27) 다음과 같은 두 비평은 박완서의 서발터니티를 고려할 때 혹은 고려하지 못할 때 따르는 어려움들을 보여준다. 김윤식은 박완서 소설 비평 작업에 있어서 하나의 보편적인 “인격체(주체성)”으로서 작가 박완서를 바라보고자 하면 “가정주부로서의 여인으로서의 존재가 내 글쓰기를 때때로 방해”했으며, 이것이 박완서의 작품을 오래도록 읽고 쓸 수밖에 없었던 연유였다고 고백한 바 있기도 하다. (김윤식, 『내가 읽은 박완서』, 문학동네, 2013, 9-10면.) 이는 문학 행위의 주체를 ‘보편적’으로 추상화하는 일이 결국 ‘남성’을 그 기준으로 삼는 일이기 때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막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편적’ 작가가 아닌 ‘여성’ 작가로 박완서를 바라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오류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오혜진은 박완서가 정통 문예지가 아닌 대중여성지 《여성동아》를 통해 등단했다는 사실을 엘리트 남성 중심적 문단에 대항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혜진, 『할리퀸, 『여성동아』, 박완서』, 오혜진 기획, 『원본 없는 판타지』, 후미니타스, 2020, 211-258면.)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의 구도 역시 엘리트 남성을 여전히 보편적 기준으로 삼은 상태에서 ‘여성’을 그 반대급부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여성’ 작가로서 박완서의 의의는 엘리트 남성이란 보편을 반항하는 데칼코마니 이상이 되지 않는다. 하위주체성을 설명하고 그 의의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반사적인 저항으로 한정되어서만은 곤란한 것이다.

이력들이 박완서의 작가 정체성과 무관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나는 늘 바쁘고, 그 바쁨을 아주 짜임새 있게 처리하지 않으면, 조금치의 나만의 시간을 갖기조차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나만의 시간의 달고 아쉬운 맛을 알고 있다.

그 감칠 맛 있는 자유의 맛을 알고 있다.

어찌 그 시간에 글을 쓴답시고 약삭빠른 속임수나, 재치있는 말장난을 일삼을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작가란 이름을 악세사리처럼 달고싶었던 치기의 시기를 넘긴 지 오랜 지금 그럴 수는 없다.

나는 그냥 말하고 싶을 뿐이다. 거침없이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나와 내 둘레의 여러 형의 사람들을 좀 더 깊은 애정으로 이해하고, 비정하게 해체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찌든한 고뇌와, 슬픔과 분노를 추려다가 새로운 인간 - 결국 내 분신이 되겠지만 - 을 만들고 싶다.

그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껏 진실을 외치게 하고 싶다.<sup>28)</sup>

서울 중산층 전업주부 박완서는 근대화 및 경제개발에 의해 시간의 '잉여' "감칠 맛 있는 자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이 생겨나자, 그간 할 수 없었던 '말', 이제까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말', 이제까지 아무도 해준 적 없었던 "나와 내둘레의 여러 형의 사람들"에 대한 '말'을 "거침없이 진실"껏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서울 중산층 전업주부에게 주어진 시간적 여유는 아직 아주 작은 것이었을 뿐 결코 넉넉한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중후반이라는 시기는 도시화 및 근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 과도기로, 전업주부가 실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전히

28) 박완서, 앞의 글, 173면.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악전고투를 해야 했다. 아래 인용은 《여성동아》 1970년 12월호 특집 〈하면 되더라 1970년〉에 ‘마흔에 소설쓰기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박완서가 기고한 당선 소감문의 일부로, 1960년대 근대화 및 경제개발에 의해 형성된 문학 행위자의 주체성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짐작토록 해준다.

나는 별 수 없이 원고지 대신 조그만 몽당연필과 수첩을 마련해서 늘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실상 좋은 상이 떠오를 때란 편히 원고지를 펴 놓고 앉았을 때라기 보다 아무 때나 느닷 없이 떠오르기가 일쑤여서 내 이런 방법은 아주 나를 만족시켰다.

부뚜막에서건, 세탁하는 도중이건 어디서고 심지어 떠오른 생각을 쉽사리 잡아둘 수 있었다. 심지어는 장에 갈 때도 그 수첩에다 사야할 찬거리까지 메모해 가지고 갔다가, 슬쩍 슬쩍 꺼내서 메모한 것도 보고 몇자 씩 써 넣기도 했다.

그렇다고 깨어 있는 동안은 늘 소설생각만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일 할 때는 일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하나만을 연구해 가며 하는 게, 일을 빨리 끝 마치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바쁠 때 조금이라도 탄 생각을 하면, 한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번에 나뉘어 하게 되어 엉뚱하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된다.

한번에 완전한 상(床)을 봐들여가지 못하고 탄 생각을 하느라 간장종을 빠뜨려서 가지고 들어가면, 국 그릇이 모자라 다시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고 보면 정작 밥통이 안들어 왔더라는 식으로 일을 해 보라. 아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될 것이다.

그 반대로 한번 동작으로 여러 일을 한꺼번에 치를 수 있도록 그때 그때 머리를 재빠르게 회전시켜야 한다.

결국 탄 생각을 하면서 해도 되는 기계적인 일(빨래 부비기, 걸레질 하기)과 머리를 쓸수록 능률적일 수 있는 일을 엄격히 구별할 필요가 생긴



다.

차차 장보기도 일주일에 한번씩으로 정하고 토요일이면 큰 딸과 시장에 가서 일주일치 찬거리를 사 들었다. 이 때 구식이지만, 큰 전기냉장고가 크게 도움이 됐다.<sup>29)</sup>

위의 인용은 자녀들이 자신의 가사노동을 분담해줄 만큼 성장하고 구형 전기냉장고를 살 수 있을 만큼 경제 수준이 향상된 것이 박완서로 하여금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었던 물질적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근대적 문물들에 의해 여성들에게 새롭게 열린 이 작은 '틈'이 문학 행위의 새로운 주체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위의 당선 소감에서 박완서가 자신의 가사 노동이 '능률'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화 및 경제개발로 인해 열린 '틈'은 기존에 제한되어있었던 여성들의 행위성을 확대해주었기에 여성들은 이 '틈'을 보다 크게 넓혀줄 수 있는 근대화와 도시화, 경제개발을 환영했다. 이는 합리성, 효율성, 경제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당대 통치 질서가 담론 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전업주부'라는 이름의 근대적 여성 주체를 차차 주조해나가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과도기의 상태였을 뿐이었다. 위의 박완서 당선 소감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박완서 가정의 부엌은 박완서가 등단한 1970년까지도 아직 입식으로 개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부뚜막에서 해야 했다.<sup>30)</sup> 또한 박완서의 가정은 당대 중산층의 표지였던 TV와 냉장고는 갖추고 있었지만<sup>31)</sup> 아직 세탁기를 구입하기 이전이었

29) 박완서 외, 앞의 글, 172면.

30) 근대화 및 경제개발은 1960년대부터 부엌 설비에 영향을 미쳐오기 시작했으므로, 완전한 형태의 근대식 부엌을 설치할 수 있는 가구의 수는 많지 않았다. 다만 가옥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과도기적 부엌이 등장할 수 있었을 뿐이다. (조혜영, 『한국 부엌 디자인의 역사 : 근대 이후 부엌의 문화사적 의미』,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57-162면.)

31) 1970년대 초반까지 TV가 중산층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냉

기 때문에 아홉 식구들의 빨래를 모두 손빨래해야 했다. 무엇보다 박완서의 가정은 '전근대'의 전형적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다섯 자녀와 3대로 이루어진 대가족이었다. 박완서의 가정이 근대 사회로 향해가는 길목에 있는 과도기적 가정이라는 것은 박완서에게 근대성에 대한 거리감과 이질감을 지니도록 하여 근대적 주체로 길들여져 가는 과정에 저항감을 가지게 했다.<sup>32)</sup> 이는 근대화에 의한 여성의 주체화가 일직선적 과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일부를 이루었던 어떤 것이 찢겨져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것이 어색하게 기워지는 모순으로 점철된 과정이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는 과도기의 근대적 여성 주체가 자기 내부의 양가성 때문에 항시 괴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예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완서가 20년 이상 살아온 한옥 떠나기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연탄 관리의 불편함 때문에 1981년에 근대 문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도, 세탁기 구입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퍼더앉아 손빨래를 했다고 모순된 회고를 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했다.<sup>33)</sup>

장고, 세탁기가 그 기준이었다. (이상록, 『1970년대 소비억제정책과 소비문화의 일상정치학』, 《역사문제연구》 17(1), 2013, 160면)

32) 본고와 같은 견지에서 김종훈은 박완서 소설 분석을 통해 텔레비전·전화기·양변기와 같은 근대적 테크놀로지들이 가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근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독재국가의 통치성에 의해 여성의 주체성이 형성되어갔음을 분석하고 있다. (김종훈, 『1970년대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테크놀로지의 가정화와 오이코노미아』, 《한국예술연구》 25, 2019.) 김종훈은 이 과정에 의해 사적 영역인 가정 안으로 여성들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었다고 바라보고 있으나, 본고는 이 의견에 일견 수긍하면서도 이 과정에 의해 중산층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이 확장되었다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한다.

33) 박완서, 『세탁기와 빨래』, 『살아 있는 날의 소망』, 2015, 98-102면.

### 3.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공모'와 전업주부의 작가되기

1960년대 대도시 중산층 여성이라는 새로운 문학 행위자 층의 등장은 '읽을거리'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지의 세대교체 현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65년에 창간된 《주부생활》과 1967년에 창간된 《여성동아》는 1955년에 창간된 《여원》과 1962년에 창간된 《여상》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빠르게 대도시 중산층 여성이라는 새로운 독자층을 개척했다. 《여원》과 《여상》은 전문직 여성 및 여대생을 예상 독자로 표방하면서 발간되었던 여성지로, 여성의 교양 함양 혹은 계몽을 위한다는 목적을 내세우는 여성지였다. 그러나 1966년 기준 한국 여성 전체 인구 중 1%만이 대졸자였음을 감안해볼 때, 《여원》과 《여상》이 타깃으로 삼았던 '여대생'이라는 독자층은 실제 대졸 여성들이라기보다 '여대생'이라는 정체성에 동일시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자본을 가진 여성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도 여성지를 구독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지닌 여성은 소수의 여성만으로 국한되어 있었기에, 《여원》 및 《여상》은 자신들의 독자층을 고등교육 받은 '지성인'으로서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전반에 걸친 경제개발 및 근대화의 혜택으로 대도시 중산층 여성들 역시 여성지를 쉽게 구독할 만한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됨에 따라 여성지를 구독하는 여성상은 여성 대중을 포괄할 수 있는 여성상으로 새롭게 변경될 필요가 있었다. 1965년에 《주부생활》이 '주부', 1967년에 《여성동아》가 '전 계층의 여성' 및 '서민 여성'을 독자층으로 표방하면서 창간된 것은 여기에서 연유했다.

9月の 女性誌 가을의 냄새 풍기는

女苑

탐스러운 국화를 가슴 가득히 안은 표지가 향기롭다. 특집 「일본 상품

을 막아라」는 시기에 적중한 편집.

일본상품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소금 한말 주고 콩 여섯말 가져가던 日인들이 이제 한국의 시장을 송두리째 가져가려하는 속셈」을 파헤쳤다. 女苑은 사회상에 민감하다. 일확천금을 꿈꾸다 부채와 파탄만 안고 나동그라진 「화장품 신종계」의 우매한 여인들, 「무우즙과동」 뒤에 숨은 희비극을 취급, 여성의 생활과 사고에 건전한 길잡이가 되려는 노력이 보인다.

### 女像

신혼후보생을 위한 조심스러운 안내가 알뜰하다. 역시 가을은 결혼의 계절이니까. 바느질·음식·시가에의 예의 또 성의학 등 신부가 알아두어야 할 일들이 다정하게 엮여져있다. 종합연구로 「日本女子」를 다루었다. 한일국교정상화를 기회로 일본 여성들에 대한 예비지식을 한국여성들에게 미리 넣어주자는 선의에서일까?

### 主婦生活

방대한 표지가 초가을을 흠뻑 빨아들였다. 여인의 손에 들린 바구니 속의 청포도 흑포도가 싱싱하다. 생활전선에 근심스럽게 뛰어든 주부들의 수입법이 공개되었다. 집세를 받아서 개를 길러서 자녀의 등록금을 낸다는 약가의 여유를 보인 주부도 있고 가정부를 해서 적은 보수나마 떼떈한 땀의 댓가로 자랑스러운 주부도 있다. 「노이로제」 처방, 이상적인 부엌의 설계, 개량법이 실용적이다.<sup>34)</sup>

위의 인용은 1965년 《주부생활》이 막 창간된 이후 3종의 여성지 《여원》, 《여상》, 《주부생활》이 어떻게 내용을 서로 달리하여 독자를 끌어오고자 했는지 잘 보여준다. ‘일본 상품을 막아라를 당월 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데서도 잘 나타나듯, 1955년에 창간된 《여원》은 새롭

34) 9月の 女性誌 가을의 냄새 풍기는), 《경향신문》, 1965년 8월 16일.

게 건립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신들에게 여성 계몽의 임무가 있다는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962년에 창간된 여성지 《여상》은 《여원》에 비해 비교적 읽기 쉬운 내용으로 여성 교양과 생활의 지혜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여원》과 마찬가지로 교양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여성지였다. 《여상》은 “신혼후보생을 위한 조심스러운 안내” 및 “일본여자”에 대한 특집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 및 예의 범절과 같은 보수적인 여성 교양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에 반해 1965년에 창간된 《주부생활》은 《여원》과 《여상》과 그 기조가 대조되었다. “여인의 손에 들린 바구니 속의 청포도 흑포도”가 싱싱하고 건강한 활기와 물질적 풍요로움을 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부생활》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주부생활》의 기사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생활전선에 근심스럽게 뛰어드는 주부들의 수입법”이나, 집세를 받고 개를 기르며 가정부 일을 하면서까지 해서 수입을 내는 주부들의 사연이 소개되는 것은 《여원》이나 《여상》과 같은 ‘교양을 추구하는 여성지에서 그간 주안점을 두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이 세 여성지는 모두 1960년대에 발행부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공유했지만, 그 증가 속도는 1965년에 창간된 《주부생활》이 두 여성지보다 월등하게 빨랐다. 《여상》은 창간 2주년인 1964년에 발행부수 5만을 돌파한 반면, 《주부생활》은 창간 2주년에 10만부를 돌파했다는 데서 증가 속도의 차이가 잘 드러났다.<sup>35)</sup>

1967년에 창간된 《여성동아》 역시 《주부생활》의 뒤를 이어 새로이 형성된 대도시 중산층 여성들의 경제력이 높아짐에 따라 발간되었던 잡지였다. 그러나 《여성동아》의 독자 상은 당대 여성 정체성의 전형이라 간주되었던 ‘주부가 아닌 ‘여성 일반’으로 상정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주부생활》과 《여성동아》의 표지에서도 잘 나타났다. 《주부생활》

35) 김종희, 앞의 글, 107면.

이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주택을 배경으로 양장한 젊은 주부의 실물 사진을 표지로 내세웠다면, 《여성동아》는 자신들의 독자가 어느 특정 집단의 여성으로 한정되고 있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실물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나이와 생김새를 짐작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여성의 얼굴 그림을 표지에 사용했다. 《여성동아》는 《주부생활》과 마찬가지로 ‘실용’을 중시하면서도,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의 행위주체성을 ‘전업주부’라는 여성 정체성 모델에 한정하여 표현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미혼의 여공, 여대생, 기혼 직장 여성, 전업주부 등 세대·지역·학력·경제를 가로질러 전 계층의 여성을 ‘서민 여성’이라는 이름의 독자층으로 포괄했던 것이다.<sup>36)</sup> 이와 같은 《여성동아》의 시도는 당대 여성 독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내, 이미 《주부생활》, 《여상》, 《여원》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1967년에 뒤늦게 창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창간 3년 만에 발행부수가 10만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반면 《주부생활》과 《여성동아》의 활약에 밀려 새 독자층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던 《여상》은 1968년 2월호를 마지막으로, 《여원》은 1970년 4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sup>37)</sup>

새로운 여성 독자층의 출현이 여성지의 세대교체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이들이 원하는 문학의 주제와 양식 역시 전후 여성 세대의 그것과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여성 독자층의 감수성에 맞는 문예생산의 역할을 맡은 여성지는 《여성동아》였다. 《여성동아》는 1967년

36) 1967년 창간 당시만 해도 《여성동아》는 ‘실용’과 더불어 ‘교양지식’까지 추구하겠다는 이중의 목표를 동시에 지니고 양쪽의 독자를 모두 포섭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창간 초기 3년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잡지 내용을 구성해야 할지 혼동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이 각축을 벌이다 1970년에 이르러 ‘실용’ 및 ‘생활’로 기초를 확실히 한다.

37) 《여원》은 《주부생활》과 《여성동아》와의 경쟁 속에서 1968년에 《생활여원》이라는 별책부록을 발간하는 등 교양잡지에서 실용잡지로 노선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으나 결국 1970년 4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그러나 1971년 11월 《신여성》이라는 명칭으로 재발간되기 시작하여 1974년 9월까지 발간되다가 1974년 10월 이후부터 다시 《여원》이라는 잡지명을 사용하여 1995년 4월까지 발간되었다.

11월 창간호에서부터 '여류장편소설공모'를 실시하는 등 1960년대 신세대 여성지 중에서도 여성문예에 관심을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60년대까지 여성이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일반적 관문인 문예지의 추천제는 대학 교육을 통해 쌓은 사회적 연고가 없는 여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제도가 아니었다면,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공모'는 문예지의 추천제나 일간지의 신춘문예보다 사회적·문화적 문턱이 낮은 제도였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을 통해 문학적 전문성이나 사회적 연고를 쌓아두지 않았던 여성에게도 전업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공모'가 여성문학 생산자의 실질적 계층 변화를 가져온 연유는 여기에 있었다. 박완서를 비롯하여 1970-80년대에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공모'를 통해 등단한 여성들이 대졸자 도시 중산층 가정의 전업주부라는 비슷한 생애 경로를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38)

	이름 (『수상작품명』)	출생 연도	학력	직업
1968년 제1회 (54편 응모)	정영현 (『꽃과 제물』)	1940	서울대 미학과 졸업	무직
1970년 제3회 (33편 응모)	박완서 (『나무』)	1931	서울대 국문과 중퇴	주부
1971년 제4회 (44편 응모)	윤명혜 (『난파선』)	1946	서울대 사대 영문과 졸업	교사
1972년 제5회 (31편 응모)	정혜연 (『배회하는 바위들』)	1944	이대 영문과 졸업	주부
1973년 제6회 (26편 응모)	오세아 (『요나의 표적』)	1941	이대 영문과 및 대학원 졸업	무직
1974년 제7회 (24편 응모)	노순자 (『타인의 목소리』)	1945	서리벌예대 문창과 졸업	주부
1975년 제8회 (22편 응모)	유덕희 (『하얀 환상』)	1954	중앙대 문창과 재학	대학생
1976년 제9회 (40편 응모)	이윤순 (『이민 파이터』)	1945	고려대 국문과 졸업	주부

中年 여인의 허기증

나는 내가 작가가 되고싶다는 오랜 갈망과 수업끝에 등단하게 되었는데, 등단이라는 걸 하고 나서 작가가 되기로 걱정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런 김새란 누구에게나 그렇게 모호한건지 내 경우만 그런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뿔튼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70년 봄, 어느 날 단골 미장원에 가서 내 차례를 기다리며 뒤적이던 女性東亞에서 여류 장편소설모집이란 공고를 보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대며 소설을 쓰고 싶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女性東亞와의 인연의 시작이다.

그전까지의 나는 문학지망생이었다기보다는 문학애호가였다고나 할까, 매달 애독하는 문예지도 있었고, 신인 등용문으로서의 추천제나 신춘문예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만큼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단 한번도 응모해본 적이 없었고, 응모하고 싶어본 적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女性東亞의 공고난에 강하게 사로잡혔던 것이다.<sup>39)</sup>

위의 인용에서 박완서는 왜 자신이 《여성동아》를 통해 등단하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박완서는 자신이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부터 문예지를 구독하여 볼만큼 문학 애호가였고, 추천제나 신춘문예와 같은 일반적인 등단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는

1977년 제10회 (40편 응모)	김향숙 (『기구야 어디로 가니』)	1951	이대 화학과 졸업	주부
1978년 제11회 (35편 응모)	이덕자 (『나팔수』)	1947	이대 국문과 졸업	주부
1979년 제12회 (36편 응모)	조혜경 (『우단 의자가 있는 읍』)	1952	성균관대 국문과 졸업	주부

(1969년 제2회 수상자는 남성으로 밝혀짐에 따라 수상 취소됨.)

39) 박완서 외, 『특집 登壇前後』, 《여성동아》, 1974.11, 144-145면.



단 한 번도 응모를 시도해본 적도 없고, 시도해보려는 마음도 품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공모'를 보고 나서 느닷없이 "기슴이 두근대며 소설이 쓰고" 싶어졌다고 얘기한다. 문예지의 추천제나 일간지의 신춘문예는 평범한 중산층, 대학 중퇴, 20년 차 전업주부 박완서에게 '문턱'이 높은 제도였기에 감히 도전하려는 마음을 내기 어려웠다면,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공모'는 자신과 같은 사회적 계층의 여성들을 향해 열려 있는 제도였기 때문이었다.

《여성동아》가 이 여성들을 새로운 문예 생산자 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료가 일간지의 신춘문예만큼이나 높았다는 데 있었다.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공모' 당선 상금 50만원은 《여성동아》와 마찬가지로 여류현상문예를 실시했던 또 다른 여성지인 《여원》의 상금이 3-4만원 정도였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매우 파격적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공모'의 고료는 결혼 이후 사회적 연고 없이 가사 및 육아에만 종사하는 전업주부의 입장에서 자신의 힘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박완서가 '여류장편소설공모'에 힘을 쏟을 수 있었던 이유로 전업주부인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기 어려웠던 '돈'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박 : 술을 좋아하니까 공장 뭐 전기 무슨 공장도 하고 그랬어요. 술을 좋아하니까 늦게 들어오면 그 전에는 길도 불안하고 차도 별로 없지요. 이렇게 길에 맨홀 뚜껑 같은 것도 열려... 그런 데 빠지는 수도 있고. 그래 사람이 그러면 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 만일 불안간 저 사람이 죽으면은 난 뭐 꿈쩍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제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내가 소설로다 전환을 하면서 쓰면서 그때 그 《여성동아》 지금은 《여성동아》 이천 삼천 참 적은 돈인데 그 전에는 50만 원이 큰돈이었어요.

장: 큰돈이지요.

박: 예... 그러니 나보다 좀 전에... 돌아가신 홍성원 씨가 <디데이의 병춘>이란 걸로 당선이 됐는데 그분도 50만 원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디 쓴 걸 보니까 그걸로 다 뭐 교외지만 집도 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 50만 원 내 아, 이까짓 걸 내가 왜 이렇게 하나. 고달플 때도 있잖아요. 안 써지고.

장: 네.

박: 그럴 때. 그러다가도 내가 50만원을 벌어서 남편한테 나도 이렇게 벌었다 그러고 싶다는 생각도 나더라고요.<sup>40)</sup> (웃음)

박완서는 전업주부로서 고된 일상을 보내던 자신이, 피곤을 견뎌가며 소설을 계속 써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상금 50만원이었다는 말을 한다. “경제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기에 오로지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면서, 그러한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인데, 《여성동아》의 소설 공모의 고료는 이러한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소설을 써서 자기만의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타인에게 의지해서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의 확인이었으며 자존감 회복의 기회이기도 했다.

여자들, 특히 여편내들에겐 호지부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하다. 손에 천 개 없이 빠듯하면 생활이 마치 기름 마른 기계 돌아가는 것 같아 싫다. 호지부지 쓸 돈이 있다는 건 곧 생활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활력소라고 생각되어 상금으로 받은 돈은 그렇게 쓴 셈이다.<sup>41)</sup>

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채록 연구자 장미영), 앞의 글, 131면.

41) 박완서, 『나무 근처 그 정직한 여인들』, 《문학사상》, 1976.9, 302면.

특히 박완서에게 소설을 써서 고료를 받는다는 것은 생활비로 쓰여야 하는 돈이 아니라 생활비로 쓰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잉여'라는 데서 더욱 의미 있는 것이었다. “호지부지 쓸 돈”이란 “기름 마른 기계”와 같이 뻑뻑하고 쪼들려야 하는 주부의 일상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으나 이제 유향(有閑)해졌다는 감각 즉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졌다는 감각이 문학 행위를 하는 여성 작가라는 박완서의 자의식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여기에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1970년 늦여름, '여성동아' 기자들이 당선 소식을 갖고 왔다. “당선되실 줄 미리 아셨나”는 질문에 박완서는 당당하게 답했다.

“될 줄 알았어요. 여자들끼리 경쟁인데요 뭐.”

-모친께서 많이 좋아하셨겠네요.

“그렇지요. 사실 힘든 가운데서도 소설의 끝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니에 대한 부채감이 적지 않게 작용을 한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 일이라면 열 일 제쳐두고 챙긴 저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글 쓰기가 힘에 부칠 때마다 기뻐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sup>42)</sup>

또한 전국 규모의 장편소설공모에 당선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소설이 단행본으로 출간된다는 것은 결혼 이후 사회적 성취를 이룰 길이 없어진 여성들에게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기도 했다. 박완서가 위의 인터뷰에서처럼 자신이 고된 괴로움을 견뎌가며 소설을 썼던 다른 이유로 어머니를 드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결국 졸업을 포기하고 결혼하여

42) 이나리, 앞의 글, 281면.

전업주부가 되어 버린 자신에게 실망했을 어머니에게 다시 기쁨을 안겨 드리고 어머니에 대한 부채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설을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공모’가 박완서를 비롯해 도시 중산층 여성들에게 붙여넣은 소설 쓰기에 대한 욕망은 예술 창작에 대한 욕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지위 획득 및 직업 활동에 대한 욕망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동아》를 통해 등단한 여성들의 작가적 자의식은 《현대문학》과 《여원》의 연계 속에서 구성되는 전후 ‘여류’ 문인들의 작가 의식과 그 성질이 다른 것일 수밖에 없었다.

〈當選所感〉

더 수척해 지겠다

朴婉緒

나는 그 글을 쓸 동안 조금 고단하고 많이 행복했다. 당선 소식을 듣고 요 며칠 나는 아직 기쁨을 느끼기에 조심스럽다. 당선이란 과정이 나에게 어떤 뜻을 지니게 되려는지 나는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서투른 글을 쓰기 위해 서투른 엄마가 되려는 거나 아닐까? 그럴 수는 없다.

좋은 글을 쓰고 싶다. 계속 좋은 주부이고 싶다. 나는 이 두가지에 악착같은 집착을 느낀다. 나는 내 이 무모한 탐욕을 위해 좀더 고단해야 겠고 좀 더 수척해져야 할까 보다.

〈當選者 略歷〉

一九三一年 開城出生, 一九五〇年 淑明女高卒 現 家庭主婦<sup>43)</sup>

위의 소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완서에게 앞으로 소설을 계속 써나간다는 것 혹은 작가로서 사회 활동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본업’인 주부와 병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43) 〈50만원 稿料 第三回女流長篇小說當選作發表〉, 《여성동아》, 1970.11, 112면.

중산층 전업주부에게 문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외중에 생기는 '틈'을 이용해야만 비로소 향유될 수 있었던 것이기에, 문학이란 일상적이지 않고 비경제적인 것으로 비추어졌다. 따라서 문학 행위란 일상적이고 경제적 삶을 살아가야하는 자신에게 있어 일종의 사치이자 유한계급 여성을 흉내 내는 어색한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 어색함은 박완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문단에 대한 계층적 위화감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 4. 여성대중담론으로서 '생활 수기'의 부흥과 '박수근' 묘사하기

근대화 및 경제개발의 수혜를 입은 대도시 중산층 여성이라는 새로운 문학 행위자 층의 등장은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재현된 적 없었던 특정 사회 현실을 재현의 대상으로 부상하게끔 했다. 이들은 가족의 의식주를 관리하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일기, 수기, 수필 등과 같은 비허구적 서사 재현 장르들을 통해 표현했으며, 이 글들은 '생활수기'로 명명되었다. '생활수기'는 1961년 《동아일보》의 '여성살롱', 1962년 《경향신문》의 '여성의 창', 1963년 《조선일보》의 '레이디살롱'을 시작으로 《여원》, 《여성상》, 《주부생활》, 《여성동아》와 같은 여성지들에서 독자수기 공간이 창설 및 확대되고, 주부 대상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증설됨에 따라 대중적 글쓰기 장르로 자리 잡아갔다.

'생활수기' 붐은 단순히 여성들이 현실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무슨 마력이 서려 있어 나를 그다지도 이 欄에 집착시키는 걸까? 혼자서 解明해본다. 아마 이 欄을 통해 나와 같은 韓國女性들이 千差萬別의 생활을 해가는 모양을 一目요연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sup>44)</sup>라는 한 여성 독자의 말

44) 〈女子의 窓을 읽으며〉, 《경향신문》, 1963년 3월 11일.

처럼, 여성들은 ‘생활수기’라는 담론 형식을 통하여 물가상승, 결혼, 가족, 성추행, 낱씨, 의복 구입, 음식, 취직, 서울에 대한 동경 등 구체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활발하게 주고받음으로써 소통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간적 견해”<sup>45)</sup>라는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말대로, 자기가 겪었던 실제 경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단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의’ 여성으로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해석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었다. 외부로부터 수동적으로 자극을 받는다고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실 ‘경험’을 위해서는 주체의 능동적 인지 과정이 반드시 요청된다는 점에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전달하는 행위는 자신이 현실 세계에 대해 어떠한 창조적 행위를 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전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생활수기’와 같은 현실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글역시도 소위 ‘문학’이라 분류되는 소설, 시, 희곡 등에 못지않은, 궁극적으로 ‘창조적 정신’의 소산임을 말해준다.<sup>46)</sup>

근대화를 배경으로 대두된 ‘생활수기’는 전후의 암울함을 배경으로 하는 여성 문예와 그 행위자 층이 다르기에 기존 여성 문예와 구분되는 현실 세계에 대한 해석을 보였다. 1950-60년대 여성문예에서는 유부남과의 불륜, 여성 가장의 가난과 불안, 그로 인한 ‘매춘’ 및 ‘강간’으로의 ‘타락’, 투병 등이 전형적인 소재를 이루었다.<sup>47)</sup> 1950-60년대 여성들은 언제 다시

45)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옮김,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7, 48-49면.

46)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 재현 현실에 대한 예술가의 주관적인 감정적 반응, 현실 재현과 무관한 예술가의 비전 재현으로 예술을 구분하는 것이 그 사이의 위계를 어떻게 설정하든 간에 관계없이 예술과 현실의 분리, 인간과 그가 관찰하는 세계의 분리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사물을 그것에 대한 반응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간이 경험한 현실에는 인간 자신의 관찰과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므로, 현실 경험은 곧 문화적 규약을 학습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창조 행위이기 때문이다 (위의 책, 48-52면.)

47) 이덕화, 『《여원》에 발표된 [여류현상문예] 당선작품과 기성 여성작가 작품의 비교연구』, <

터질지 모르는 전쟁, 헤어날 길 없는 빈궁, 신뢰를 보내기에 매우 미심쩍은 신생 반공국가, 와해된 가부장제 등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만성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불안감이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취약함을 여성성으로 재현하게끔 했다. 그러나 활동하며 살아간다는 '생활(生活)'이라는 용어의 뜻에서도 나타나듯이, '생활수기'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을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식물적 주체가 아니라, 그 환경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형하려는 행위자로 전제되었다. '생활수기'에서 여성들은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신을 적응시키기도 하는 보람된 때로는 고통스러운 노력들을 표현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문학의 기초 변화로도 나타났다. 1950-60년대 전후 여성문예는 여성의 무력함을 고독, 허무, 자폐와 같은 나르시시즘적이고 마조히즘적인 쾌락을 통해 너절한 현실로부터 유리된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우며 아름다운 것으로서 재현했다 그러나 1960년대 전반에 걸친 경제개발과 근대화는 이와 같은 전후 여성문예의 특징을 점차 퇴색하도록 했다. 1950-60년대 여성 문예를 이끌었던 《여원》이 폐간되는 해 마지막 현상공모에서, 불안과 고독이 아니라 '생활'을 다짐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소설을 배출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여성 문예 감수성의 세대적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렇다. 내 휴가는 여기에 없다.

한 눈을 팔고 있다 시방 나는. 나의 진정한 휴가는 이 포도나무 아래에, 기숙이의 방안에, 다크 그리인의 소오파에 아무데도 없다. 저 너더리 나던 생활, 그 생활 속에, 보이지 않는 건강한 시(詩) 속에 나의 휴가는 있었던 거야.

현대소설연구》 37, 2008; 이선옥, 『여성현상문예와 주부담론의 균열』, 『여원 연구』, 국학자료원, 2008, 317-318면.

보다 넓은 가슴을 가지자.

세상과 하늘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고향 같은 가슴으로 다시 돌아와 보기로 하는 거다.

여기엔 없다. 아니 휴가를 맞을 내 가슴이 아직 여기엔 없다.

또 하나의 여장(旅裝)을 생각하는 나는, 설레이고 있다.<sup>48)</sup>

위의 인용문은 《여원》이 폐간되는 해인 1970년 1월 여원독자문예공모 마지막 당선작인 박진숙의 단편 『부재』의 마지막 부분이다.<sup>49)</sup> 이 소설은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삶을 진취적으로 꾸려나가려고 하는 여성 기영의 이야기이다. 기영은 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하여 시골을 떠나 서울에서 억척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력하는 여성이다. 1960년대 근대화 및 경제개발의 기조에 맞는 적극적 여성인 기영은 그러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삶에 불현듯 버거움을 느껴, 나약해진 마음에 자신이 가정부로 일 하는 집 할아버지 김선생에게 사랑을 느낀다. 기영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서울에서의 삶을 일시정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고향에서 세상을 방관하듯, 유리된 듯 살고 있는 양장점 마담에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기영은 양장점 마담과 함께 “다크 그리인”의 “소아파”에 앉아 “편한 자세로, 그냥 그렇게 앉아 느슨하게 거리를 내다보는 즐거움” “게으른 즐거움”을 느끼는 일상을 보낸다. 그러나 기영은 이 생활을 곧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고생할 준비를 한다. 일류대학을 나왔지만 소설과 희곡을 쓰며 밤을 밝히는 올드미스 양장점 마담의 ‘고독’이 기영의 눈에 ‘고집’으로 읽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름답고 세련된 소파로 상징되는 1950-60년대 ‘여류적’ 감수성은 1970년의 20대 여대생의 눈에 이제 현실을 마주하여 살아가지 않으려는 도피적 태도로 해석되면서 휘말려

48) 박진숙, 『부재』, 《여원》, 1970.1, 225면.

49) 박진숙의 『부재』는 앞의 이선옥의 글에서 처음 접하였음을 밝혀둔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소파에서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넌더리나던 생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기영의 결심이 양장점 마담이 쓰는 소설과 희곡과 다른 주제와 양식의 문학 “건강한 시(詩)”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60년대 말 근대화의 수혜를 받은 대도시 중산층 여성 집단의 일원으로서 박완서가 펜을 잡았다는 것은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조화되기 시작한 여성 담론의 질서 속으로 들어갔음을 뜻했다. 다음과 같이 박완서는 근대화 및 경제발전과 같은 변화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극받았으며, 이로 인한 불안이 ‘생활수기’라는 담론 형식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낳았다.

“남편은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절 피곤하게 하지 않았고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줬죠.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디 쉬운가요. 성실하고 깔끔했고, 미8군 PX가 물러간 동화백화점 내에서 전기상을 운영했는데, 수입도 제법 괜찮아 생활은 늘 안정돼 있었어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 되도록 집에서 반주로 즐기도록 요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이 키우고 요리 하고, 그런 일들이 대체로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6·25의 생생한 기억이 어제 일처럼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삶이 평온해 상처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도덕적으로 하자 없이 사는 데도 게 붓고 집 넓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타락한 생활처럼 여겨졌어요. 사람 나고 이데올로기가 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나고 사람 난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지.”<sup>50)</sup>

위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완서는 “게 붓고 집 넓히고 하는” 생활이 “굉장히 타락한 생활”처럼 여겨져 글쓰기를 시작했다. 이는 근

50) 이나리, 앞의 글, 279-280면.

대화 및 경제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 변화가 박완서에게 야기했던 것이 무엇보다 자신의 도덕적 인격성에 대한 불안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써 자신을 인격적 존재로 실감하며 살아왔던 ‘전근대’ 사회의 여성에게, 물질적으로 편안해지는 ‘근대적’ 생활이란 더 이상 참고 견뎌야 할 것이 없어지는 삶, 즉 고통이 사라진 삶, 따라서 자신을 인격적 존재로서 실감하기도 어렵게 된 삶을 의미했다. 영국의 노동계급 문화 연구를 한 리처드 호가트는 노동계급 어머니들에게 있어 ‘생활’이란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상황을 ‘버티는 것’과 같은 것이었으며, 이는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시기에도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생활양식임을 얘기한다. 남편이 보통 가정보다 몇 푼의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더 줄 수 있어 치밀하고 뻑뻑한 돈 계산으로부터 놓여나 병원비, 조의금, 의복 구매, 자녀 교육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성들은 형편이 좀 더 나은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성들의 생활양식 역시 노동계급 여성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51)</sup> 이 여성들의 삶에서 고생은 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이므로, 고생을 수용하고 다스리기 위해 참고 버틴다는 그 자체에 삶의 만족감을 부여한다.<sup>52)</sup> ‘쌀’과 ‘연탄’, 그리고 ‘교육비’ 즉 생활필수품들이 부족할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가리키는 박완서도 이와 같은 노동계급 여성 혹은 생산계급 여성 특유의 생활 감각을 체화하고 있었던 여성이었다. ‘내핍’과 ‘자기희생’을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덕성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을 만한 인격적 자질로 삼고 살아왔던 여성에게 근대화와 경제발전은 시간적·경제적 잉여를 제공하여 행위주체성을 확대해주는 것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여성으로서 자신의 인격적 거처를 어디에 마련해야 할지 급격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호가트의 언급대로 “관습은

51) 리처드 호가트, 이규탁 옮김, 『교양의 효용』, 오월의봄, 2016, 57-58면.

52) 위의 책, 68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법”<sup>53)</sup>으로, 물질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그 전에 형성된 자신의 생활양식, 그리고 그에 맞춰서 형성된 자기정체성은 같은 속도로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1965년 5월 박수근의 부고와 박수근 유작전 관람 경험은 근대화 및 경제발전으로 인해 흔들리는 여성의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불안이 ‘발언’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박 : 그때 반도화랑이라는 게 있었고, 그 반도화랑에 지금의 그 현대화랑 주인, 그 박명자 그 사장이 거기서 아마 일했을 겁니다. 그때 박수근도 전시, 거기다 그림을 갖다놓으면 간혹 팔리면 가서 돈도 받아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그분이 나중에 글에도 쓰고 저기, 저기 박명자 씨한테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난 그 사람이 아화가, 간판쟁이가 아니라 화가였다는 건 알았지만 그런 어떤 좋은 그림을 그려서 가끔 문화면에도 나는 화가라는 걸 결혼해서 살면서 신문에서 알았는데 어디 신문회관,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돌아간 후에... 아주 가난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몰랐지요, 어느 글에서 나중에 알았지요. 근데 유작전을 했어요. 신문회관에서 그할 때는.

장 : 60년대에요?

박 : 아니요.

장 : 그러면?

박 : 68년.

장 : 68년.

박 : 68년.

장 : 네. 그래서 인제 선생님께서 거기,

박 : 가보고,

장 : 전시회를 가보신 거예요?

박 : 가보니까는 아, 그렇게 저기 그, 그때도 아우, 저 사람이 가난 속

53) 위의 책, 59면.

에서 백내장 앓고 살았다는 걸 알았는데… 얼마나 참, 그림도 좋았지만 그림값도 그때도 지금하고 댈 것도 아닐 때지만 제값을 받고 팔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은 참 정말 그 현대, 그 저기 반도화랑에 갖다놓은 게 어찌다 팔리면 그걸 갖고 가면서 집에 가면서 뭘 사가지고 갈까. 뭐 와이프 옷감이라도 하나 끊어갈까 뭐 이런 고민하는 걸 어디 쓴 일이 있는데 꽤 괜찮은 비싼 값으로 나와 있고 그럴 적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이상하더라고. 지금 같은 세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했지만 유신시대를 거치면서 조금 사람들이 밥걱정을 덜 할 때예요. 그럴 때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지금은 아주 행세하는, 죽은 후에 행세하는 작가가 돼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 다 어려울 때지만 이 사람은 특히 어떤 수모를 겪으면서 그 정말 싸구려 간판을 그렸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재리더라고요. 그 착한 사람이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음, 밥을 위해서 정말 싸구려 그림을 그렸도 우리나라 사람 얼굴도 아니고 외국 사람 얼굴을 그렸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여성동아』에 투고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여성동아』였던 게 아니라 『여성동아』에서는 7월달에 여류 장편소설 마감이고, 또 『신동아』가 지금도 『신동아』가 있지요. 그때도 『신동아』가 아주 고급 교양지였습니다. 지금은 교양지도 많고 그렇지만 거기서는 논픽션 공모를 했어요.<sup>54)</sup>

박완서는 수필이나 인터뷰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된 계기를 1965년 5월 박수근의 부고를 신문을 통해 알게 되어 박수근의 유작전을 관람한 경험을 거론하곤 한다.<sup>55)</sup> 박완서는 박수근의 부고를 들은 이후

54) 김정화, 「서구적 시각을 통한 박수근의 '정전화'와 그 과정」, 《한국예술연구》 5, 2012.

55) 박완서는 아르크 주관 미술채록에서 자신이 관람했던 박수근 유작전이 1968년 신문회관 유작전이라고 하고 있으나, 1968년에는 박수근의 유작전이 열린 바가 없다. 박완서의 등단 전 박수근 유작전은 총 두 차례 열렸다. 첫 번째는 1965년 5월 박수근 작고 이후 같은 해 열렸던

“늘 답답함을 느껴” 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한다. 특히 한국전쟁기에는 곤궁하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던 화가였던 박수근의 그림들이 1970년을 전후하여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미술 작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비로소 고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졌다고 회고한다.<sup>56)</sup> 이는 더 이상 내핍과 욕망의 절제를 요구치 않는다는 점에서 ‘비도덕적’인 물질적 부유함이 그것과 성질이 판이하게 대비되는 순수하게 정신적인 문화적 산물까지도 식민화하고 있는 장면으로 박완서에게 다가왔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분노와 저항감을 표현하는 것이 박완서가 근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한 방식이었다. 박완서는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속물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그 반대편에 있는 한국전쟁기 궁핍한 화가 박수근의 생활고를 묘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박 : 하루 한 대여섯 자만 써야지. 그때 원고지야다 쓸 때니까 근데 뭐 이십 장도 써지는 날이 있어. 보면은 막 내가 보태는 거야. 그러면 보태면서 내가 쓰니까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고 다음날 인제 어제 거 계속해서 쓰려고 읽어보면은 이건 아닌 거

1965년 10월 중앙공보관 유작전이며, 두 번째는 1970년 9월 현대화랑 유작소품전이다. 박완서가 『나무』 집필을 마친 것이 1970년 7월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1970년 9월 현대화랑 유작소품전은 『나무』 집필의 계기가 되기에 시기상 맞지 않다. 그러나 1965년 10월 중앙공보관 유작전은 박완서가 회고하는 박수근 유작전의 특징들 - 박수근의 작고 이후 몇 년 뒤에 열렸으며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음 - 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다. 1965년의 유작전은 가장의 죽음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유족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화단과 무관하게 급히 열었던 유작전으로, 박수근의 그림에 높은 가격이 책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 《신동아》 논픽션 공모가 1970년 3월 기한이었고 1970년 여성동아 여류장편소설 공모가 1970년 7월 기한이었다는 사실을 염두해볼 때, 박완서가 회고하는 박수근 유작전은 박수근 개인전이 아니라, 박수근 이외에도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이 같이 출품된 1970년 4월 현대화랑 개관기념전과 가장 가까우나, 등단 전후 관람한 박수근의 여러 유작전들이 뒤섞여 소설 쓰기의 '사후작' 기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6) 박완서, 『나무 근처 그 정직한 여인들』, 《문학사상》, 1976.9.

예요. 이걸 다 추리고 나면 진짜만 추리고 나면 쓸 것도 없고 뼈대만 남고 그러면 내가 아, 나는 그래도 이게 물론 그때는 상상력이라는 생각, 말보다는 난 거짓말을 보태니까 잘 써진다. 만약 논픽션에 이걸 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당선이 됐다가도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장 : 그렇지요.

박 : 거기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장 : 네, 네, 그럼요.

박 : 뭐 누구의 전기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논픽션은 논픽션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 나는 픽션이 나에게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거짓말을 보태니까 이렇게 즐겁고 쓰는 데 즐겁고 쓰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써지고 그래갖고 쓰던 걸 파기하고 그러니까 날짜도 딱 좋더라고 내가 그해 70년대 그게 아마 60, 70년 초였을 것 같아요. 쓰다가 5월달에 널려고 쓰던 거를 2, 3월 됐을 때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그걸로 바꿨어요. 그거는 1200장이나 되고 그거는 7월이었습시다. 그래갖고 7월달에 그걸 냈었는데 이제 이름도 실명에서 다 바꾸고 내가 그, 그 사람의 와이프를 내 상상으로는 돈만 밝히는 악처로 상상을 했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또 그게 가능하잖아요.

장 : 네, 네.

박 : 실체는 악처일 것이다. 그 대신 소설에서는 이쁘게 만들어주자. 이래갖고 막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썼는데 이제 그게 당선이 됐으니까는.

장 : 그해 당선이지.<sup>57)</sup>

그러나 박완서는 1970년 3월 말 마감이었던 《신동아》 제6회 60만원 고료 논픽션 공모에 투고할 요량으로 박수근의 전기를 집필하기 시작했

57) 한국문화예술회원, 앞의 글, 128-129면.

지만, 막상 전기를 쓰기 시작하니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보낼 때에만 비로소 글이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변화하는 사회를 향한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이고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박수근에 대한 과거 기억을 강렬하고 생생하게 묘사하는 과정은 언제나 파편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들에 허구적인 디테일들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박완서는 논픽션에서 픽션으로 장르를 바꿔 3-5개월 만에 원고지 1200장 분량의 장편소설 『나무』을 완성하여, 1970년 7월 15일 마감이었던 《여성동아》 제3회 50만원 고료 ‘여류장편소설공모’에 투고하여 당선된다. 1970년 10월 8일 동아일보 당선 인터뷰에서 박완서는 이 소설이 박수근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나, “완전한 허구”라고 말하며, 이로써 “그분의 진실”에 대해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물질적이고 속악한 현실 세계에서 생존할 수 없는 약한 것에 대한 박완서의 연민과 동정이 투영되어 정교하게 가다듬어진 박수근이라는 허구적 이미지는 박완서가 타계하여 작가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도 소멸하지 않아, 박완서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박수근에 대한 글을 쓰도록 만들기도 했다. 양키의 초상화에 전장지 양구를 써넣는 양구 출신의 박수근<sup>58)</sup>, 화첩을 끼고 그림을 살 사람을 찾아 거리를 돌아다니는 박수근<sup>59)</sup>, 백내장을 앓으면서도 화랑에 팔 그림을 그리는 박수근<sup>60)</sup>, 오랜만에 생긴 돈으로 아내에게 옷감을 끊어주려는 박수근<sup>61)</sup>, 자신에게 그림을 자랑하고 싶어 마음이 들뜬 소처럼 선량한 눈의 박수근<sup>62)</sup> 등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연민과 동정의 장면들이 현재형으로 계속 상상되어 박완서로 하여금 묘

58) 박완서, 『그는 그 잔혹한 시대를 어떻게 견뎠나』, 『두부』, 창비, 2002, 228면.

59) 박완서, 『나무 근처 그 정직한 여인들』, 《문학사상》 1976.9, 300면.

60)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앞의 글, 126면.

61) 위의 글, 126면.

62)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한국문학》, 1985.5; 박완서, 『보석처럼 빛나던 나무와 여인』, 《월간미술》, 2010.6.

사하게 했기 때문이다.<sup>63)</sup>

자신의 경험 이야기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업 과정에서 변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작가 자신이기도 하다.<sup>64)</sup> 이것이 박수근의 전기가 소설로 전환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그의 전기를 쓰는 데는 거짓말과의 싸움 말고도 또 난관이 있었다. 자꾸만 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였다.** 도처에 투사된 내 모습도 그의 전기를 순수치 못하게 했다. 자꾸만 끼어들려는 자신의 모습과 거짓말을 배제하기는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그걸 완전히 배제하면 도무지 쓰고 싶은 신명이 나지 않았다. 쾌감이든 고통이든 신명 없이 글을 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전기를 쓰기를 단념했다. 그러나 선블리 전기를 쓴답시고 고전하면서 덤으로 맛본 거짓말시키는 - 약간 고상한 말로 바꾸면 상상력을 마음껏 구사하는 - 쾌감과 자기표현 욕구까지 단념할 수는 없었다. 특히 그때까지 내 속에 짓눌려있던 나의 이야기들은 돌파구를 만난 것처럼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나는 논픽션을 단념한 대신 픽션을 쓰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해서 된 게 나의 처녀작 『나무裸木』이다. 초보적인 문학 개론서 같은 데서 소설을 일컬어 허구를 통한 진실의 표출 어찌구 하는 말을 흔히 보게 된다. 그걸 체험적으로 느꼈다고나 할까 전기를 소설로 바꿈으로써 상상력이 제한을 안 받게 되자 도리어 있었던 사실만을 모아 그를 구성할 때보다 훨씬 내가 이해한 그의 진실에 흡사한 그를

63) 레지스 드브레는 이미지가 죽음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임을 말한 바 있다. 어떤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레지스 드브레, 『이미지의 삶과 죽음』, 글항아리, 2011.)

64)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이러한 견지에서 “예술가는 재료를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될 때까지 작업한다. 그러나 그 재료가 제대로 되었을 때, 그 자신 또한 제대로 되는 것이다. 즉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연속과정으로서 예술가도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앞의 책, 63면.)



창조할 수가 있었고, 그와 함께 호흡한 한 시대를 보다 생생하게 재현할 수가 있었다.<sup>65)</sup>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변화된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서울 중산층 전업주부 여성인 자기 경험을 글로 쓰는 과정은 그 사회에 새롭게 적응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들)을 재창조하는 작업과 병행되었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 정체성의 재구조화 과정을 다루는 박완서의 초기 장편 『나무』(1970)과 『한발기』(1973)이 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련의 소설들은 예술이 단순히 현실과 분리되어 현실을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완서가 속해있는 서울 중산층 여성 공동체에 의해 행해진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자 사회적 실천임을 예증한다.

## 5. 결론

1960년대는 한국 여성들의 문학 행위에 있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다.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의해 경제력 향상, 가옥 구조 변화, 가전 제품 도입, 가족 규모 축소 등이 일어남에 따라 그간 문학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도 문학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점차 가지게 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중산층 여성들이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해감에 따라 일간지, 시사지, 여성지, 라디오, TV 등의 대중매체들은 여성 일반을 상대로 담론 장을 개방하였으며, 그 결과 상류층 엘리트 여성들만 가능했던 문학 행위가 대중화되었다. 새로운 여성 독자층의 부상은 여성문학의 감성 구조를 변화해나갔다. '여류적' 경향이라 일

65)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앞의 책, 59면.

컬어지는 불안, 고독, 자폐의 관념적 정서가 아닌 생활의 활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실적인 읽을거리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며, 이는 여성문학의 물적 기반이었던 여성지의 세대교체를 낳았다. '교양 함양을 모토로 1955년 창간된 《여원》이 1970년에 폐간되고, 1967년에 '실용'을 모토로 《여성동아》가 창간된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 《여성동아》는 '여류장편소설공모'를 통해 새로운 독자층으로 부상한 서울 중산층 여성들을 문학 생산자로서 '정식' 자리매김하였다. 서울 중산층 가정의 20년 차 전업주부이자, 미성년 자녀가 5명 있었던 40세의 박완서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냉장고와 TV 같은 가전제품의 도입과 육아 부담의 감소가 박완서로 하여금 글을 쓸 시간을 주었으며, 여성 대중에게 전업 작가의 길을 열어 준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공모'와 같은 제도가 신설되었기에 비로소 작가가 될 수 있었다.

제3회 《여성동아》 '여류장편소설공모' 당선작이자 박완서의 첫 소설 『나목』(1970)은 전후 여류 문예적 경향을 탈피하고 '생활' 감수성을 바탕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던 1960년대 중후반 여성서사문화 속에서 쓰인 소설로, 박완서라는 작가가 세대·계층·젠더·지역적 특성이 교차하는 담론 집단 속에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나목』의 모티프가 되었던 박수근이라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는, 당대의 사회적 변혁을 평범한 전업주부인 자신(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경험/해석하고 있는지 '생활수기'의 형식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했던 도시 중산층 여성 전체 분위기 속에서 박완서에게 묘사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것이었다. 박완서는 이 전달의 작업을 유별히 생생하고 강렬하게 잘 할 수 있었기에 전문적 문학 행위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박완서가 평범한 전업주부이기를 그쳤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박완서의 초기 작품 『나목』(1970)과 『한발기』(1973)가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작가 개인의 반응뿐만 아니라 당대 여성 일반의 공동의 의미를 띠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1. 기본 자료

- 박진숙, 『부재』, 《여원》, 1970.1, 52면.
- 박완서 외, 〈특집 하면 되더라, 一九七〇年〉, 《여성동아》, 1970.12, 173면.
- 박완서, 『나무 근처 그 정직한 여인들』, 《문학사상》, 1976.9, 300·302면.
- \_\_\_\_\_, 『女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샘터》, 1978.9, 25-26면.
- \_\_\_\_\_,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한국문학》, 1985.5, 59면.
- \_\_\_\_\_, 『두부』, 창비, 2002, 228면.
- \_\_\_\_\_, 『보석처럼 빛나던 나무와 여인』, 《월간미술》, 2010.6.
- \_\_\_\_\_, 『살아 있는 날의 소망』, 문학동네, 2015, 98-102면.
- 여성동아 편집부, 〈50만원 稿料 第三回女流長篇小說當選作發表〉, 《〈여성동아〉》 1970.11.
- 이나리, 〈불을 꺼안은 얼음, 소설가 박완서〉, 《신동아》, 2003.7, 279-281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채록 연구자 장미영),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108, 박완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2-131면.

## 2. 논문

- 강정화, 『서구적 시각을 통한 박수근의 '정진화'와 그 과정』, 《한국예술연구》 5, 2012.
-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국어국문학》 133, 2003.
-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 - 역적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6(4), 1994.11.
-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생장의 서사 - 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 2002.
- 김연주·이재경, 『근대 '가정주부' 되기 과정과 도시 중산층 가족의 형성: 구술생애사 사례 분석』, 《가족과 문화》 25(2), 2013, 34-35면.
- 김은석, 『'여류문학전집'(1967-1979)과 여성문학의 젠더 정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2-92면.
- 김은하, 『애증 속의 공생, 우울증적 모녀관계』, 《여성과사회》 15, 2004.
- 김정은, 『박완서 전쟁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종훈, 『1970년대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테크놀로지의 가정화와 오이코

- 노미아, 《한국예술연구》 25, 2019.
- 김중희, 『1960년대 출판문화와 여성지 연구 : 부르디외(Bourdieu)의 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55·107·151면.
- 박성천, 『박완서 자전소설의 텍스트 형성 기제와 서사 전략 - 『목마른 계절』과 『나목』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7, 2006.
-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 논문, 2003.
- 손윤권, 『번복의 글쓰기에 의한 박완서 소설 『그 남자네 집』의 서사구조 변화』, 《인문과학연구》 33, 2012.
-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 - 박완서 문학과 서울』, 《여성문학연구》 25, 2011.
-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 - 박완서론』, 《오늘의 문예비평》, 1998.3.
-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45, 2018.
-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울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4.
- 이덕화, 『《여원》에 발표된 [여류현상문예] 당선작품과 기성 여성작가 작품의 비교연구』, 《현대소설연구》 37, 2008.
- 이상록, 『1970년대 소비억제정책과 소비문화의 일상정치학』, 《역사문제연구》 17(1), 2013, 160면.
- 이선옥, 『모성 다시 쓰기의 의미 : 박완서론』, 《여성문학연구》 4, 2000.
- 이정희, 『오정희 · 박완서 소설의 근대성과 젠더(Gender)의식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 『엄마의 말뚝』, 『목마른 계절』,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의 오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4, 2007.
- 조혜영, 『한국 부업 디자인의 역사 : 근대 이후 부업의 문화사적 의미』,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57-162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통해 본 한국 여성 삶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31면.
- 황도경, 『정체성 확인의 글쓰기』, 《이화어문논집》 13, 1994.

### 3. 단행본

-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1920-3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과 여성잡지의 젠더정치』, 소명, 2017.
-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문학제도와 양식』, 소명, 2012.

21 · 196-206 · 279면.

김윤식, 『내가 읽은 박완서』, 문학동네, 2013, 9-10면.

오혜진 기획, 『원본 없는 판타지』, 후머니타스, 2020, 211 · 258면.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2018, 30면.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여원 연구』, 국학자료원, 2008, 317 · 318면.

Debray, Regis, 정진국 옮김, 『이미지의 삶과 죽음』, 글항아리, 2011.

Eagleton, Terry, 윤희기 옮김, 『비평과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2012, 93면.

Hoggart, Richard, 이규탁 옮김, 『교양의 효용』, 오월의봄, 2016.

Williams, Raymon, 성은애 옮김,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7, 48-52 · 63면.

#### 4. 기타

〈여성들은 반성하자 『영국여성이 본 한국여성』을 읽고〉, 《동아일보》, 1960년 10월 5일.

〈일반여성. 살림에 억눌린채 『읽지않는다』가 대부분〉, 《조선일보》, 1960년 10월 23일.

〈書店街에 비친 主婦의 讀書熱 寒心... 겨우 顧客의 二割 찾는책은 小說 · 『스타일 · 북』 따위〉, 《조선일보》, 1962년 10월 24일.

〈女子의 窓을 읽으며〉, 《경향신문》, 1963년 3월 11일.

〈9月の 女性誌 가을의 냄새 풍기는〉, 《경향신문》, 1965년 8월 16일.

〈배우는 주부들 활발해진 성인재교육〉, 《동아일보》, 1967년 3월 23일.

〈어머니는 고달프다〉, 《경향신문》, 1967년 5월 8일.

〈양지회여성강좌〉, 《경향신문》, 1968년 1월 13일.

〈서울의 주부생활〉, 《경향신문》, 1968년 6월 24일.

〈냉장고는 去年의 15倍〉, 《매일경제》, 1968년 6월 10일.

〈『알뜰한女性像』에의 熱意〉, 《동아일보》, 1969년 5월 1일.

〈편리한 부엌살림〉, 《동아일보》, 1969년 5월 29일.

〈《女性東亞》 공모小說 당선 『裸木』 朴婉緒 여사 “戰火 속에 핀 畫家의 사랑그려”〉,  
《동아일보》, 1970년 10월 8일.

<Abstract>

The Modernization in 1960s  
and ‘Ordinary’ Women’s Literary Acts  
—Park Wan-Seo’s Writing on *Naked Tree*(1970)  
and Being a Writer

Han, Kyung-Hee

The 1960s was a period of dramatic change in Korean women's literary acts. This is because the modernization of economic power, changes in house structure, introduction of household appliances, and the reduction of family size have allowed women who had to devote themselves to household chores and caring babies to participate in literary acts. Popular media such as daily newspapers, women's magazines, radio, and TV have opened discourse space for the women, and as a result, literary acts that were only available to upper class elite women became popular. The rise of new women's readership has changed the emotional structure of women's literature. The demand for realistic readings that can share the vigor of life rather than the ideological emotions of anxiety, solitude, and autism, which is called the 'feminine' tendency, has increased. This was why that women's magazine 'Yeowon' which was founded in 1955 was closed in 1970, and "Women's DongA" was founded in 1967. 《Women's DongA》 established the 'Women's Novel Contest', and it made middle-class women in Seoul as producers of women's literature. This is why Park Wan-seo, a 40-year-old full-time housewife of a middle-class family in Seoul, who had five children, could write a novel.

Park Wan-seo's first novel, *Naked Tree*(1970), was written in

women's narrative culture in the mid and late 1960s. This novel shows well that the author, Park Wan-seo, was composed through a discourse group in which generation, class, gender,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tersect. The good and beautiful image of Park Soo-geun emerged as an object of specific portrayal to Park Wan-seo. She wanted to communicate with other women how they were experiencing / interpreting social transformation of the day. Park Wan-Seo became a professional literary actor among them because she was able to do the work of social communication through depicting her experiences exceptionally vividly and intensel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Park Wan-seo ceased to be an ordinary housewife.

Key words: Park Wan-seo, housewife, writing on living, *Naked Tree*, 1960, Park Soo-geun, Women's DongA, modernization

투 고 일 : 2020년 5월 16일

심 사 일 : 2020년 5월 21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6월 26일